



몽테뉴는 독서만큼 값싸게 주어지는 영속적인 쾌락이 없다 했거늘, 쾌락을 좇는 요즘 사람들 손엔 책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미 싼 값도, 영속적인 쾌락도 속도와 현란함으로 말초적 감각을 자극하는 전자매체 앞에 선 우습디는 표정들이다.

때가 이러하니 “문자의 들뜬판에서 문학이라는 곡식을 먹고 성장했다”고 지난날을 되새기는 문학평론가 이남호(48·고려대 국어교육학과) 교수는 누구보다 혼란스럽다. 문학하는 이로서 세상의 흐름에 부지런히 추수를 들이냈고, 그 이유와 의미, 영향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과속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이해하는 일이 결코 녹록진 않았다. 특히 전자매체가 번성하는 것과 반비례해 문자매체가 급속히 쇠망해 가는 형국이니 사태는 더욱 비극으로 느껴졌다. 전자문화 관점에서 우리사회 변화상을 읽어낸 《문자제국 쇠망약사》를 펼치면 이 비극을 바라보는 이 교수의 안타까운 시선을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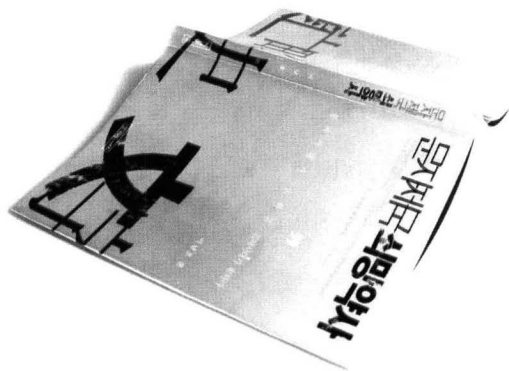
“문제의 출발은 문학이 위축되고 쇠퇴해 가는 환경, 상황에 의문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문학이 문화의 중심이자 꽃이었죠. 사람들은 문학을 존중했고, 한국의 대표 명사를 뽑을 때도 단연 문인이 많았습니다.”

정치·사회적 문제들을 고민하는 중에도 그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선 문인은 물론이고 문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이전 전자문화가 우리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 맥루한 이론으로부터  
변화에 대한 구조적 이해 )

이 교수는 1990년대 이후부터 변화의 조짐을 느꼈다고 말한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도처에서 들려오던 즈음부터 그가 속해 있는 학교와 문단, 그 외부에 있는 문화들은 순식간에 변화의 기류를 탔다. 이렇듯 자신을 키워낸 문자제국이 점차 쇠락해 가는 모습을 보

‘문학하는 지식인’의 소명의식으로 저술했다



면서 앞만 보며 미래를 예측할 수만은 없었다. 우선 지금 이곳이 어딘지를 냉정하게 되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고, 그런 까닭에 2000년 경부터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눈여겨보게 됐다.

“이성의 쇠퇴, 사이버공간의 확대, 포스트모더니즘의 범람, 서사의 와해, 지식과 책의 변질, 경계의 소멸 등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다보니 처음엔 그게 모두 한 흐름의 영향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문학의 쇠퇴만 해도 그저 근대문학 양식의 수명이 다해서 그런것이려니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미국의 영문학 교수 맥루한의 이론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변화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됐다. 맥루한은 문자제국은 쇠퇴하고 전자제국이 번성할 것이며 탈근대사회의 모든 징후들은 모두 전자매체의 산물이 될 것으로 예견했다.

이 교수가 전자문화적 관점으로 세상의 변화를 읽게 된 데는 맥루한의 영향이 컸다. 맥루한은 27세(1937년)의 젊은 나이에도 동시대 젊은이들의 대중문화에 의문을 가지면서 미디어, 전자문화, 기술론 등 당대 문화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독창적 사유를 끌어낸 인물. 그 행보를 엿보니 일견 이 교수와 닮은 곳도 없지 않다.

맥루한의 《구텐베르크 은하계》를 펼쳐든 이 교수는 활자가 쇠락한 시대, 천박해진 문화를 점검해 보는 자신의 시선을 비단 문학에 가두지 않았다.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된 《전자책 희망약사》는 월드컵 현상, 학교교육의 변화, 초라해지는 문단현실, 소외된 독서문화 등 전자매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사회 모든 현상들을 점검한다.

가령 교육분야에선 매체교육 문제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실제 수업시간에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수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자문화적 수업내용을 녹화해 텔레비전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허다하다. 비록 기존 수업의 중계방송밖에는 되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전자매체의 영향이 깊숙이 스며든 모습이다.

( 전자문화, '부족적 인간'들의 집단엑스터시도연출 )

월드컵 문화에 닿은 이 교수의 시선은 전광판, 인터넷, 휴대폰과 거리 응원과 태극기 패션 등을 연장선 안에서 바라본다. 전광판, 인터넷 휴대폰과 같은 전자매체가 사람들을 광장으로 모여들게 했고, 온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데 일조를 했다는 것이다. 극적이게도 전자문화의 상징인 월드컵은 승리를 거뒀고 군중들은 열광했지만 한편에선 우리나라 대표서점 종로서적이 부도를 맞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터졌다. 이 교수는 이 상황을 구텐베르크 은하계가 사라지고 마르코니 성운이 나타난 걸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맥루한은 인류의 역사를 3등분 합니다. 문자이전 시대, 즉 구술시대가 있고, 문자시대가 있지요. 그 다음이 전자시대인데요, 맥루한은 문자시대에 근대의 모든 것들을 탄생시킨 뿌리가 있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이성, 입각한 사유방식 등이 여기서 탄생되지요. 이후엔 전

자문화가 문자문화를 대체하면서 커다란 개벽이 옵니다. 그런데 전자문화는 문자문화 이전의 구술문화, 즉 부족민들의 문화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월드컵 문화가 이를 잘 말해줬지요.”

맥루한의 이론에 비춰봤을 때 근대적 인간은 전자시대를 맞이하면서 부족적 인간으로 변한다. 이 교수는 이같은 '재부족화 현상'에 특히 주목하는데 부족들이 가졌던 원시성과 축제적 성격 등이 월드컵 광장에서 벌어졌던 것이 일례가 된다. 몇 백만의 인파가 거리로 몰려나와 집단 엑스터시를 경험했던 사건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아니나 그만큼 절제와 깊이와 내면을 버리고 초이성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한번쯤 생각해 보자는 의미다.

## ( 새로운 문화에 대한 길항력... 전자문화시대의 당위 )

“물론 전자문화를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전자문화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고는 버리자는 제안이죠. 사람들은 어떤 걸 얻음으로 해서 잃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문사, 출판사도 시스템을 바꾸고, 학교도 교육시설 개선을 합니다. 디지털 세상이 무조건 좋은 것, 발전한 것이라고만 생각할 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 본질을 고민하진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문자적 전통이 약한 까닭에 옛것을 더 쉽게 무너뜨리고 부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스럽지요.”

이 교수가 염려하는 부분은 서양인들에 비해 로고스적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다. 훈련도 훈련이거니와 한국인은 민족성 자체도 로고스보다 파토스에 가까워 새로운 문화를 향한 길항력을 만들지 못했다. 선진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는 우리보다 먼저 전자문화를 받아들이며서도 새로운 세계를 시종일관 비판적으로 곱씹어봤으나 유독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다.

전 국민적으로 선풍적인 독서열기를 불러왔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도 그 예로 언급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독서효과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문자문화 유산들을 해치고 만다는 게 이 교수의 논리다. 책은 분명 문자문화인데 이것을 전자문화적인 공간에서 소개한다는 것은 특정 책을 찾아서 문자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이미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다.

“물론 안 보던 사람이 책을 사보게 되고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통털어 봤을 때 독서문화 자체를 죽일 수 있는 일이지요. 변화는 문단에서도 느껴집니다. 하우스 같은 사람들이 20세기 초에 영화는 분명 훌륭한 예술장르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 됐어요.”

이 교수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의 영화는 예술이 아니라 오락이 돼버렸다. 예술에서 오락으로 성격이 바뀌었는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해도 오락을 예전처럼 예술이라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책도 그렇지요. 과거에 독서는 인생의 등불이라 했는데 이때 책은 진지하고 깊이 있는 책들을 의미하거든요. 이에 비해 요즘 유행하는 칼럼이나 퓨전화된 비평을 마음의 등불이란 의미의 독서라 부를 순 없는 문제입니다.”

## ( 낯선 문화적 결과물에 대한 치열한 고민 필요 )

책의 변화는 비평가나 문인의 행보만 봐도 쉽게 감지가 된다. 이 교수는 문예창작과 교수 장원재 씨가 축구칼럼을 쓰는 것을 대표적 예로 거론한다. 이 교수 개인적으로야 이런 변화가 싫지만 이런 형태의 글쓰기는 이미 가치판단의 문제를 넘어서 현실이 된 지 오래다.

앞으로의 글쓰기 문화는 예전과는 다르게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영상매체에 어울리지

★

★

일제 구한말에 나라가 망하는데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통해하는 지식인도 있었잖습니까.

현태에도 그 역할을 지식인들이 해줘야 합니다.

《문자제국 쇠망약사》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 담겨

있지요. 우리가 할 일은 쇠망한 나라에서도

좋은 것들, 잃어버린 좋은 것들을 생각할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낯선 우리문화를 지켜본 결과물인데

이게 모두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를 두고

젊은이들도 치열하게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않는 문인들은 윤대녕의 <절레꽃 기념관>에 등장하는 소설가처럼 바람에 선 절레꽃 같은 존재가 될지 모른다. 전자제국에선 예술과 문화는 곧 돈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젠 문청이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니다. 학생들도 많이 변했지요. 일례로 얼마 전엔 무진기행을 가르쳐줬더니 대학가에 있는 카페 무진기행이 책제목에도 있다고 놀라더군요. 제가 대학생 때는 기껏해야 당구치고 심심하면 책읽는 게 취미였는데 요즘은 게임이니 인터넷이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책읽을 시간들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을 보더라도 두 인간형이 공존합니다. 저는 문자인간, 아이들은 전자인간에 가깝지요.”

30년 가까이 문자문화의 백성으로 살아왔으니 ‘새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만은 않을 터. 그러나 이남호 교수는 “문자고목의 백성이라 전자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즐겁진 않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 속에서 홀로 지내는 삶을 택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남호 교수는 이번 책작업을 문학하는 이의 사명으로 준비했다.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더 남아 있기도 하다. 한 예로 네티즌 정치를 전자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을 남겨둔 상태다.

“일제 구한말에 나라가 망하는데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통해하는 지식인도 있었잖습니까. 현대에도 그 역할을 지식인들이 해줘야 합니다. 《문자제국 쇠망약사》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 담겨 있지요. 우리가 할 일은 쇠망한 나라에서도 좋은 것들, 잃어버린 좋은 것들을 생각할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낫선 우리문화를 지켜본 결과물인데 이게 모두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를 두고 젊은이들도 치열하게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

취재 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